

광주자치경찰위, 시책 성과 자화자찬...시민들은 '싸늘'

3년 임기 마무리...스쿨존·지하철 공사구간 등 교통관리대책 마련 자평 불법 주정차·교통·음주사고, 공사장 안전관리 엉망 등 시민체감 역부족

시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2021년 5월 출범한 제1기 광주 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9일 3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광주자치경찰위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철도 공사구간' 교통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 맞춤형 시책을 발굴·추진했다고 자평했지만, 스쿨존에는 주정차 위반사건이 넘쳐나고 교통·안전사고 등도 연이어 발생하는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호 시책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교통관리 대책 등 지역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80여 건의 건의·제안 사항을 처리했다.

자치경찰위는 특히 3년간 광주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157곳에 사·종점을 표시하고 눈에 잘 띄는 노란색 횡단보도 조성, 보행로와 차도 분리,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의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공공 기관과 함께 희망 퇴출 통합지원단을 꾸려 긴급 지원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들을 도왔으며, 광주경찰청·광주시교육청·국네이버스 광주전남본부 등과 연대해 긴급 생활비·학업·심리 상담 등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 구제를 위해 11명의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경찰 신고·수사단계에서부터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게 했다고 자치경찰위는 자평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선 이 같은 자치경찰위의 활동 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자치경찰위가 내놓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 대책을 보면, 불법 주·정차량이 전면금지 단속 시작(2022년 2월 1일) 후 2년만에 총 8만 건 넘게 적발됐을 정도로 엉망이었다.

매일 110대 넘는 차량이 광주지역 스쿨존에서 적발됐고, 단속시간(오전 8시-오후 8시)을 고려하면 1시간에 10대 꼴로 스쿨존 불법 주·정차가 발생한 셈이다. 올 들어서도 1월 한 달 동안만 총 2276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등하굣길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수년째 도심 곳곳에서 진행 중인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관련 시민 불편도 여전하다. 공사 시설물 등에 막혀 횡단 보도가 사라져 시민들이 위험한 도로로 내몰리는가 하면, 햇갈리는 차선 등 불안정한 교통 시스템 때문에 차량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자치위가 또 다른 성과로 내세운 음주운전 단속강화 정책도 효과는커녕 내부 단속마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올 들어 경찰



광주자치경찰위는 지난 3년간 스쿨존 157곳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조성하는 교통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스쿨존 곳곳에서 매일 100대가 넘는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는 등 학생들이여전히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12일 광주동부경찰 소속 A경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적발됐고, 올 들어 광주서부경찰 소속 직원 3명이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바람에 서장과 과장 등 상급자들이 줄줄이 대기 발령 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한편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지난 3

년간의 성과와 아쉬운 점을 담은 광주자치경찰 제1기 위원회 백서를 발간·배포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참고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김태봉 광주 제1기 자치경찰위원장은 "제2기 위원회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시책을 완성해 자치경찰제도가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5·18 왜곡 게임 제보 부산초등생 초청 격려

광주시, 13일 표창장 수여 칭찬·감사의 마음 전하기로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설정한 로블록스 게임을 제보한 초등학생을 초청해 격려하기로 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3일 부산에 사는 초등학생을 초청해 광주시장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칭찬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로 했다. 이 학생은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의 게임 '그날의 광주'를 방송사에 제보해 공론화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날의 광주는 1980년 광주 금남로를 배경으로 시민군과 군경이 총격전을 벌이도록 설정했다. 게임메너로 아이템을 사용하면 북한군이 될 수 있도록 하거나 땅굴을 따라가면 인공기와 북한 노래가 나오는 등 대표적인 5·18 왜곡 소재인 북한군 침투설도 차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로블록스 측은 최근 사과문을 내고 게임을 삭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순천시·순천대, 용역공개 등 이행시 국립의대 공모 원점 재검토

12일 5자회담 제안 전남도에 공모탈락지역 대책 등 세가지 조건 제시 전남도 "도민 의견 수렴, 공정한 기준으로 투명하게 진행" 동참 호소

국립 의과대학 신설 공모 방식에 반대해온 순천대·순천시가 불합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12일 5자 회동을 제안한 전남도에 과거 용역 내용 공개 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순천대·순천시는 이들 조건이 이행되면 참여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과거 다른 조건·범위로 수행된 용역의 세부 자료로 인해 오히려 지역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어 요약서를 공개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공모와 관련 당사자 기관과 협의·합의 후 투명 공개·도민 동의의 언어 진행, 공모 탈락 지역에 대해 각 지역 정치권·지역민과 합의 후 대책 제시 등의 조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모 과정에서 최대한 이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병희 순천시의회 의장, 이병운 순천대 총장, 김문수·권형업 국회의원 당선인은 7일 순천시청에서 "30년 만에 합계게 언어·합의 의대 신설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제시한다"며 "제시한 방안을 전남도가 모두 이

행한다면 공모 참여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남도가 두 차례에 걸쳐 전남 의대 설립에 대해 용역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가 특정 지역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의대 설립 문제를 공모에 부치는 것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5인 회동'에 대해서는 3가지 조건에 대한 도의 대응을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 요청에 따라 추진 중인 전남도의 대학추진 절차에 순천대도 참여하기를 강력히 호소한다"고 답했다.

이날 대변인 명의의 '순천권, 전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령 주장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립의대를 유치하고자 하는 각 지역의 열망과 의지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으나 30년 이상 걸려 어렵게 얻은 전남

도 국립의대 신설 기회는 모든 도민의 염원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모든 지역 도민의 건강권과 전남 전역의 의료 완결성을 최우선에 두고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는 또 입장문에서 순천지역에서 발표한 입장문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전남 전 지역의 상생과 화합을 거듭 강조했다.

도는 이어 "공모 용역은 객관적이고 공정력있는 기관에 위탁해 양 대학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모든 과정을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전남도 공모의 법적권한과 타락한 지역에 대한 대책과 관련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 차원에서 해당 지역 도민의 건강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특단의 보완대책도 용역에 반영해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최근 오는 12일 순하철 목포대 총장, 박홍률 목포시장, 이병운 순천대 총장, 노관규 순천시청 등에게 김영록 전남지사와 첫 회동을 갖고 제안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GGM 노조 민노총 가입 상생협약 신뢰 흔들려"

강기정 시장 "연 35만대 생산 노사민정 협약 차질 없이 지켜져야"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일부 노동자들의 전국민노총연합회(민주노총) 가입 결정에 대해 "상생 협약의 신뢰가 흔들리는 모습"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강 시장은 7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GGM으로 대표되는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광주의 제안이었다"며 "GGM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사민정이 합의해 만든 광주형 일자리이지, 기업이나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노사민정은 35만대 생산까지 상생협약을 이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협약을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 리하지 않았지만, 최근 GGM 현장에서 상생협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실제 민선 8기 들어 기존 212명에게 20만원씩 지급하던 주거 지원금을 557명·27만 2000원으로 확대했고, 하반기부터는 3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강 시장은 "주거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공동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임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가장 낮은 1년 차 기술직 보수 총액도 연간 37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다시 한번 35만 대 생산까지 노사민정 상생 협약이 차질 없이 지켜지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또 "오는 7월 시작되는 GGM 전기차 생산과 판매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광주시는 취득세 50만 원을 지원하도록 추경에 담았다"면서 "GGM 역시 지속 가능한 생산성 유지를 위해 추가 생산할 차종 확보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2024. 3. 13(수) 오후 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두리보석2층)
- 수강료: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4. 3. 6(수) 오후 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〇〇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공개
- 기강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남골당 및 수목장 수목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정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상명,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뭣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뭣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펜션 급매매

전남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 리조트 가기 전

- 대지 1,795㎡
- 건축 282㎡
- 연면적 438㎡
- 수영장 有
- 총 2개동 (객실실11개, 히노끼 욕조 6개)
- 1개 소매점
- 주차 15대
- 현재 주차장과 정원부지로 사용중인 밭(전) 1,320㎡ (무상양도)

매매가 9억 8천

010-3666-6301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당 회사는 2024년 3월 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4년 04월 01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는 바,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국민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길로 11, 2층 206호(화정동, 우성아파트상가)
청산인 박소연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메디컬빌딩
840㎡ 비박628㎡ 대형건물
약국, 의료기관 4개입주

월 3천4백만원 매가78억
은행 36억5천, 전9억4천포함

인수가 32억

010-3646-8700

지분임야
바로 삽니다
010-5962-3900

안 팔리는 부동산 교환, 매매
010-3605-5000

先州日報 지역안내

- 동 2005-1920 · 동 206-1990 · 북광주 525-3761
- 신 222-9171 · 양 신 517-7638 · 오 치 266-7601
- 동 433-1503 · 우 신 433-1503

북 구

- 남 673-6836 · 동 222-9054 · 동 부 225-6001
- 동 222-9054 · 동 222-9171

동 구

- 남 673-6836 · 북 651-1833 · 동 신 673-6836
- 동 673-6836 · 신 671-7276

남 구

- 동 382-5788 · 서 372-2362 · 서광주 389-1625
- 서 376-7153 · 서 376-6511 · 동 603-0311
- 화 정 369-1625

서 구

- 동 952-1687 · 동 959-1920 · 동 973-2900
- 동 955-0451 · 동 944-0444

광주 구